

토마스 쉬르마허 (Thomas Schirrmacher)가 2017년 9월 9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

친애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친한 친구이신 이영훈 목사님,
그리고 친애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또한 하나님 양떼들을 섬기시는 목자되신 주의
종되신 친애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고 여
러분의 인사를 받으며 강력한 영원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곳을 방문하는 것은 저에
게 큰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제게 큰 특권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지난 70년 동안 성령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의 좋은 예로써 생각합니다.
전쟁, 식민주의, 빈곤 및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인종차별주의 또는
이슬람교와 같은 세속적이거나 종교적인 초대형적인 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
회와 세계선교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세계화되었습니다.

우리가 할일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전에는 오늘날과 같이 세계선교의 대업의 완성
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저는한 때 선교사를 파송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였던,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
는 유럽 대륙에 선교사 파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유럽
은 외부에서 선교사가 들어와 사람들 가슴에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
었습니다.

저는 2011년에 바티칸과, 세계교회협의회 및 세계복음주의연맹의 발전을 돋기위한 서
신의 첫머리에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자
신이 선교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하나님의 첫번째 선교사 셨습니다.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서는 자신을 에덴동산에 나타내셔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고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
디 있느냐?"

2 예수님은 선교사의 정의로 볼 때 또한 선교사입니다. 주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 복음을
창조하고 인류에게 복음이 선포되도록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3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선교사로, 그동안의 역사에서 있었던 모
든 개개인의 회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자신의 교회가 선교사명의 완수에 함께 동역하기를 바
랍니다.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과 동역한 교회의 복음 전파의 예가 사도바울이 아시아에서 유
럽으로 처음 전파되게 된 이야기입니다. 사도 행전 16장 9~10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마케도니아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과 동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다고 결론을 내리고 곧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꿈과 예언을 통해 그분의 종들에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십여년에 걸친 전세계적 교회와의 경험과 유럽 교회의 상태를 연구한 결과, 성령께서 다시 한번 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을 유럽선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제 마음에 큰 짐을 지우셨습니다:

"와서 도와주세요"(행 16:10)

아시아에 계신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들께서 유럽에 다시금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1 세속화된 유럽사람들과 자유주의적인 교회들은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인들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 지난 수십년 동안 복음을 부인한 강팍한 독일인들의 마음을 열고 있는 많은 예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오는 많은 무슬림들에게 다가가서 도와줌으로 그들의 종교에서 파생된 증오와 폭력과 다른 모든 환난으로부터 깨어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갈구하게 하는 데에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유럽의 기독교인의 말은 거의 듣지 않지만 아시아 기독교인의 말은 마음을 열고 듣습니다.

이는 유럽에 있는 무슬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좋은 기회입니다. 이미 현재 독일에서 많은 회교도 피난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국인 박사 과정의 한 학생을 지도하였는데, 그 분은 논문을 기한내에 마쳤을 뿐만 아니라 아랍인교회, 터키인교회 그리고 쿠르드인교회 이렇게 세 교회를 동시에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분을 유럽 사람이 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곳보다 더 좋은 곳에서 이 성령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세계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러 온 이 때보다 더 나은 때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세상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 말씀하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만이 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메신지 전파자로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분을 증거함으로 그 분의 더 큰 사역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증거할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와서 도와주세요!"